https://doi.org/10.31821/HEM.91.3

초급 한국어 학습자 대상 복수 표지 '들' 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하신영**

‖ 차 례 ‖

Ⅰ 서론
Ⅱ '들'의 문법과 제약
Ⅲ 한국어 교재에 사용된 '들'
Ⅳ 초급 학습자 코퍼스에 나타난 '들'
Ⅴ 결론: 초급 학습자용 '들' 교육 내용

【국문초록】

지금까지 한국어 교육 문법이나 어휘에서는 복수 표지 '들'에 집중하지 않았다. 복수 표지 '들'에 대한 문법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한국어에서 복수가 문법 범주가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학습자들은 이 문법 형태를 사용하고 있으며 오류를 보이기도 한다. 한국어 교육 문법으로서의 '들'의 교육 내용을 확정하기 위해 기존의 문법서와 사전의 기술을 바탕으로 교재에 사용된 양상을 확인하고 학습자 코퍼스를 분석하여 초급 단계의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복수 표지 '들'의 교육 내용을 도출하였다. 기본적으로 복수 표지 '들'은 사물 명사가 아닌 인간 명사와 결합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문장에 불명확한 수를 나타내는 표현이 있을 때에도 '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사람 명사에는 '들'을 붙여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선행 명사가

* 이 논문은 인천대학교 2019년도 자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인천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복수 인칭 대명사일 때에는 '들'을 붙여 복수의 의미를 강조할 수 있다는 점도 교육 내용에 포함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한국어 교육 문법, 복수 표지 '들', 초급 학습자, 사람 명사, 사물 명사, 학습자 코퍼스 분석

Ⅰ.서론

한국어에서 '수(數)'는 문법 범주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 문법에서 복수 표지 '들'을 명시적으로 가르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1] 또한 '들'은 복수성을 표현할 때 결합되는 단위이기는 하나 수의적으로 결합된다는 인식 때문에 교육 문법으로 설정하기에 망설여진다. '들'이 사용되지 않은 명사형도 복수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복수 표지 '들'의 사용이 수의적/잉여적이라 말할 수 있지만 '들'이 사용되거나 사용되지 않는 환경에 뚜렷한 경향성이 있다면 학습자 문법으로서는 수의적이라 말할 수 없다.[2] 또한 '들'이 붙었을 때와 안 붙었을 때의 의미

---

1) 본고에서 논의하는 복수 표지 '들'은 명사(구)에 붙어 선행 명사에 복수 의미를 더하는 접미사 '들'에 한정한다.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문법이 관심 대상이므로 '어서들 오시게'에 쓰인 경우나, '사과, 배, 감 들의 과일'에 쓰인 경우는 다루지 않는다.

2) 실제 '들'의 사용 양상을 다룬 다음의 논의들도 결국은 '들'의 사용이 수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혜(2011)에서는 '들'이 잉여적으로 쓰일 때와 필수적으로 쓰일 때가 구분된다는 입장이고, 전영철(2015)에서는 집합 명사의 의미를 상세히 구분하면서 결국 '들'의 쓰임은 수의적이지 않음을 보였다. 코퍼스를 통해 '들'의 사용을 관찰한 노은주(2008)에서는 실제로 사용되는 양상을 보면 무표형 명사는 단수를, '들'명사형은 복수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강범모(2007)은 화용론의 관점에서 해석하여, 복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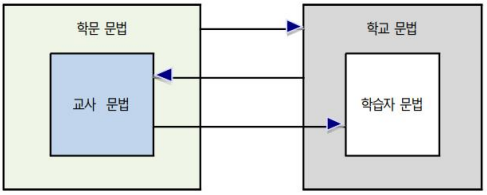
차이에 대해서도 연구자별로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교육 문법으로서 이러이러하다고 확정하기 매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대부분의 한국어 사전과 문법서, 교재 등에서 복수표지 '들'을 다루지 않고 있다.[3)]

명시적으로 교수되지 않았음에도 학습자들은 복수표지 '들'을 사용하고 있다. '들'은 그때그때 생략해도 되는 수의적인 단위가 아니라 특정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단위가 된다는 것을 알고 사용한다. 복수표지 '들'은 이미 학습자 문법으로서 자리 잡은 형식임에는 틀림없다.[4)] 자신이 내재화한 학습자 문법에 따라 다음

성이 예측되는 맥락에서는 복수를 나타내기 위해 무표형이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맥락에서는 무표형이 단수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한다.

3) 한국어 학습 문법 사전류에서는 백봉자(2006)에서 다루는 것이 유일하며, 대표적인 대학 기관에서 출판한 교재들에서도 문법항목으로 따로 다루는 경우는 거의 없다. 서울대 한국어에서는 'pluralizing suffix'로 연세 한국어에서는 'plural suffix'로 새 어휘란에 제시하며 이화 한국어, 경희 한국어, 서강 한국어에서는 새 어휘로도 제시하지 않고 본문 문장에서 바로 사용하고 있다.

4) 여기서 말하는 '학습자 문법'은 신호철(2018: 136)을 따른 것으로 학습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내재화되어 있거나 학습자가 외현화할 수 있는 문법을 말한다. 교재나 교사를 통해 명시적으로 배운 문법이 아니더라도 학습자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의 문법을 내재화 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학습자 문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들'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학습자 문법을 형성하는 데에 영향을 줄 '교사 문법', 나아가 학교 문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학문 문법, 학교 문법, 교사 문법, 학습자 문법 전개 과정> (신호철, 2018: 140)

(1)과 같은 예문을 생성했을 때 교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1) ㄱ. 우리는 고등학교에서 케이크들을 먹었어요.
ㄴ. 같이 영화들을 봤어요.
ㄷ. 시장에서 사과하고 가지들을 샀어요.[5]

한국어 화자라면 누구나 (1)의 예문이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이라고 판단할 것이며, 그 어색함이 '케이크들, 영화들, 가지들'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다. 그렇다면 '케이크들'이 아니라 '케이크'라고 써야 한다고 고쳐줄 것인가? 이렇게 고치면 하나의 케이크가 아니라 복수의 케이크를 먹었다는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학습자의 의도를 반영하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교사가 위와 같은 학습자 자료를 만났을 때에는 어떻게 고쳐 줄지 고민이 된다. 막상 고치려고 해도 복수 표지 '들'에 대한 교육 문법이 정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선뜻 손을 대기 어렵게도 느껴진다. 문제는 이를 판단할 문법적 기준, 혹은 교육 문법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6]

최근 한국어 교육 연구에서 '들' 관련 논문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학습자들이 이 문법 형태를 제대로 배울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반증한다. 그러나 교육 문법으로서 '들'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공통의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고 언어권별 비교대조 연구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자마다 기준으로 삼는 '들'의 문법 내용이 다르다. 그렇

5) 4장에서 검토한 학습자 코퍼스에서 예를 가져옴.

6) 본고에서 말하는 교육 문법은 'teaching grammar'로 해석되는 것으로서 규범 문법의 한 가지로 학교 문법처럼 교육적으로 필요성에 의해 정리해 놓은 문법을 말한다. 조형일(2019)에서 새롭게 논의하고 있는 '교육문법' (educational-grammar)-기능중점으로 초점화된 문법-과는 구분된다.

기에 이들 연구에서 비문 혹은 정문이라고 판단한 문장의 적형성에 대해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이쉐신윈(2019)는 '들'에 대한 미얀마 학습자들의 인식 설문 조사를 통해 '들'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했으며 학습자들이 명시적으로 '들'을 배운 경우는 50%이며 그나마 알고 있는 내용은 명사 뒤에 붙는다는 내용 정도임을 확인했다. 이건희(2018)은 문법성 판단 테스트를 통해 중국어권 중,고급 학습자의 한국어 복수 표지 습득 양상을 살핀 연구이다. 이때 비문과 정문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은 '들'의 특징은 [+유정성] 명사와 결합하며 수량표현과 함께 쓰일 수 없고 [-유정성] 명사과 결합할 때는 가산명사일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같은 중국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안희돈 외(2018)에서는 '들'이 고유명사를 제외한 명사와 결합하며, 가산 명사 뒤에 오고, 인칭대명사의 경우 '우리, 너희, 저희'와 같은 복수 대명사와 결합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 터키어와의 대조 연구를 한 조은숙(2019)에서는 '들'이 가산성을 띤 명사와 대명사에만 붙을 수 있으며 지시 관형사와 어울리게 되면 '들'의 사용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대조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 같은 기준에 따르면 위에 제시한 예문(1)의 문장은 비문이 아니다. '들'이 일반 명사 '케이크, 영화, 가지' 뒤에 붙었으며 이때 이 명사들은 가산명사라 할 수 있고, 이 문장에는 수량표현이 없으니 '들'을 쓰는 것에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급 단계의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가르칠 자연스러운 한국어로서 예문(1)은 적절하지 않다.

본고는 '들'과 관련된 교육 문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관련 문법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 학습자 문법을 관찰하는 데에서 시작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교육 문법을 설정할 때

에는 학문 문법에서 출발하여 그 중에서 교육 문법으로 삼을 만한 것을 추리고, 기준에 따라 단계별로 나누어 교육 과정에 반영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이며 대부분의 한국어 교육 연구와 교재 편찬이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가장 최근에 발표된 표준 교육과정에서도 복수표지 '들'은 찾아볼 수 없다.[7)]

본고의 목적은 복수 표지 '들'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학문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초급 단계의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가르쳐야 할 기본적인 교육 내용을 확정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복수표지 '들'의 교육 내용 전반을 확정지어야 하겠지만 본고에서는 우선 초급 단계의 교육 내용, 구체적으로는 예문(1)을 제대로 고쳐주기 위해 어떤 교육 내용이 필요한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사전과 교육문법서, 연구논문 등을 통해 교육 문법의 내용이 될 만한 '들' 관련 제약의 내용을 모으고, 3장에서 기존의 한국어 교재에서 '들'이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 살핀 후, 4장에서 코퍼스 자료를 통해 실제 학생들이 '들'을 어떻게

7) '2017년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4단계) 어휘, 문법 등급 목록_20180227_20201117 수정.xlsx' (https://www.korean.go.kr/front/reportData/reportDataView.do?mn_id=207&report_seq=932&pageIndex=1)에서 복수 표지 '들'은 어휘 항목에도 문법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결과는 '들'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학문 문법에서 출발하여 교육 문법을 설정하는 단계까지 가는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한다. 학문 문법에서 교육 문법을 설정하기가 어렵다면 반대로 학습자 문법에서 교육 문법을 도출해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접근은 다소 위험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문법 내용이 한국인 화자가 가지고 있는 문법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데에서 한국어 교육 문법 연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학습자 문법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학습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오류를 보이고 있는지 분석한다. 결론적으로 초급단계의 한국어 학습자가 이해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의 '들'을 확인하고 초급 학습자용 복수표지 '들' 교육 문법을 실질적으로 구성해 볼 것이다.

Ⅱ. '들'의 문법과 제약

'들'이라는 새로운 어휘를 만났을 때 그 의미를 알기 위해 학습자들이 가장 먼저 참고할 수 있는 것은 사전이다. 그러나 기존 사전에서 '들'을 검색하여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매우 단순하다.

(2) <표준국어대사전의 복수 표지 '들' 관련항목의 기술>
-들9
「접사」((셀 수 있는 명사나 대명사 뒤에 붙어))
'복수(複數)'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사람들.
• 그들.
• 너희들.
• 사건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복수의 뜻을 더한다는 기본 의미 외에 확인할 수 있는 사용상의 제약은 셀 수 있는 명사나 대명사와 함께 쓰인다는 점이다. 예문을 통해서는 선행 명사의 유형에 별다른 제약이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고려대한국어대사전은 선행명사가 일반명사이냐 대명사이냐에 따라 둘로 구분하여 서술한다.

(3) <고려대한국어대사전 '들' 관련항목의 기술>

-들6

접미사

① 셀 수 있는 체언 뒤에 붙어, '그것의 수(數)'가 여럿임의 뜻을 더하는 말.

예) 학생들 사람들 그들
자기들 저들 이들

②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일부 대명사 뒤에 붙어, '사람의 수가 여럿임'을 강조하는 말.

예) 우리들 너희들 저희들

위 사전의 기술과 표준국어대사전의 기술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은 결합되는 선행명사의 부류를 세분화했다는 점이다. 먼저 가산 명사와 함께 쓰이는 경우, 명시적인 기술은 없지만 예문을 통해 사람 명사와 함께 쓰이는 것이 일반적임을 보인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예문에 '사건들'을 포함시킴으로써 사물 명사와의 결합에 제약이 없는 것처럼 기술했지만 고려대사전에서는 예문에 사물 명사와 결합된 것을 싣지 않았다.[8)]

또한 대명사 뒤에 '들'이 쓰일 때에도 제약이 있음을 보여준다. 모든 대명사가 아니라 일부 대명사라는 서술은 '들'이 복수 대명사 뒤에 붙는다는 것을 말하며, 이때에는 '수가 여럿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수가 여럿임'을 강조하는 말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즉 복수 인칭대명사와 함께 쓰일 때의 '들'을 일반 명사와 함께 쓰일 때의 '들'과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

8) '들'의 선행 명사의 종류를 구분하기 위해 보통 명사를 두 부류로 나누었다. 사람을 일컫는 '아이, 어머니' 등을 '사람 명사'로 부르고 그 외 '개, 나무, 책' 등을 '사물 명사'로 하여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한국어 학습자용 사전에서는 일반 사전보다 좀 더 자세하게 '들'의 제약을 다룬다.

(4) <『한국어 문법 사전』의 복수 표지 '들' 관련항목 기술>[9]
복수를 나타낼 때는 어미 '-들'을 붙여서 쓰기도 하지만 문장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또는 문장 요소 중 복수를 나타내는 말이 있을 때는 생략하여도 된다. 그러므로 '-들'을 붙이는 것이 필수는 아니다.

① 명사에 붙여서 쓰이는 경우
-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명사가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로 쓰이면 그 명사가 복수임을 나타낸다.

예) 손님들이 12시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회사에서 생산하는 차들은 엔진이 좋습니다.

③ 인칭대명사 중 복수를 나타내는 '우리, 저희, 너희'에 '-들'을 덧붙여서 '우리들, 저희들, 너희들'로 쓴다.

붙임>
②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들'을 쓰지 않는다.
㉠ 문장에 수량을 나타내는 상태동사나 부사가 있을 때는 쓰지 않는다.
- 교수님 서재에는 책이 많더라.
- 여기저기서 전화가 왔다.

㉡ 수를 나타내는 단위 명사 아래에는 쓰지 않는다.
- 우리는 맥주 세 병을 마셨다.
- 최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여러 번 왔어요.

㉢ '둘, 셋, 넷' 등과 같이 수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는 쓰지 않는다.
- 그는 아들 셋을 잘 키웠습니다.

이 사전에서는 선행 명사가 가산 명사일 경우 사람 명사에나 사물 명

9) 백봉자(2006) 236-237면에서 관련항목 발췌.

사에나 '들'이 붙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학습자용 사전인 만큼 '들'이 붙을 수 있는 인칭대명사를 '우리, 저희, 너희'로 한정하여 제시한 것도 앞선 사전들과 다르다. 무엇보다 이 사전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붙임2에 담긴 제약부분이다. 언제 '들'을 사용할 수 있느냐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언제 '들'을 사용하면 안 되는가를 보여 줌으로써 학습자들의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서술한 것이다. 문장에 수량을 나타내는 표현-수사, 수관형사, 상태동사, 부사-이 있을 경우 복수 표지 '들'을 쓰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학습자들이 어떤 경우에는 '들'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가에 대한 길잡이를 제시한 데에 의의가 있다.

한국어 원어민과 한국어 학습자 양쪽의 관점을 고려하여 집필된 한국어문법서에서도 '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5) <『한국어문법』의 '들' 관련항목 기술>[10]

- 복수대명사에 '=들'을 붙인 다음 형태들은 복수의 의미를 강조한다.
  - 우리/우리들, 너희/너희들, 저희/저희들, 여러분/여러분들
- 복수를 함의하는 단어가 문맥에 있으면 '=들'이 불필요하게 된다. 이때는 '=들'을 쓰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다.
  - 책을 여러 권 샀다.
  - 사람이 많이 모였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들'이 적극적으로 복수를 표시한다.
  - 책상에 책이 놓여 있다. (단수/복수)
  - 책상에 그 책이 놓여 있다. (단수)
  - 책상에 그 책들이 놓여 있다. (복수, 특정한 책 여러 권을 가리킴)

이 문법서에서도 사람 명사와 사물 명사를 구분하지 않고 '들'과 함께

10) 배주채(2019) 63-64면에서 발췌.

쓸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인칭 대명사의 경우 '들'이 붙어서 복수의 의미를 강조하는 의미로 쓰이는 것을 구분하였고, '들'이 붙을 수 있는 복수 대명사 목록에 '여러분'이 더해졌다. (4)에서 언급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으로는 지시사와 함께 쓰여 특정한 대상을 가리킬 경우 복수를 나타내기 위해 '들'이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문법 기술 내용은 위에서 검토한 것 외에는 찾기 힘들다. 이들 설명을 종합하여 '들'의 사용 제약에 대해서 (6)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다.

(6) 가. '들'은 셀 수 있는 명사에 결합하여 복수의 의미를 더한다.
나. '들'은 복수 인칭 대명사(우리, 저희, 너희, 여러분)에 결합하여 복수 의미를 강조한다.
다. 수를 나타내는 단위 명사 뒤에는 쓰지 않는다.
라. 문장에 복수를 뜻하는 단어가 있는 경우 '들'을 쓰지 않는다.
마.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는 경우에는 '들'의 사용이 필수적인 경우가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예문(1) '우리는 고등학교에서 케이크들을 먹었어요.'는 여전히 적절한 문장으로 판단된다. 셀 수 있는 명사 '케이크'와 함께 쓰였고 단위 명사도 없으며, 복수를 뜻하는 단어도 없고, 특정한 케이크를 가리키는 경우도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6)에 정리된 제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뜻이다. 본고는 '들'이 결합되는 선행명사의 종류에 제약을 두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즉 '들'은 셀 수 있는 명사에 결합하며, 기본적으로 그 명사는 사람 명사여야 한다고 본다. 앞서 검토한 고려대한국어대사전에서도 예문을 통해 그러한 경향을 확인했었다. (4)에서 보인 『한국어 문법 사전』에서는 사람 명사와 사물 명사에 모두 '들'이 결합될 수 있다고 언급했으나 사실

그 아래에 쓰인 예문을 다시 살펴보면 사물 명사와 결합되는 경우 매우 어색함을 확인할 수 있다.

(7) ㄱ. 교수님 서재에는 책이 많더라.
ㄱ'. 교수님 서재에는 책들이 있더라.
ㄴ. 여기저기서 전화가 왔다.
ㄴ'. 학교에서 전화들이 왔다.
ㄷ. 우리는 맥주 세 병을 마셨다.
ㄷ'. 우리는 맥주들을 마셨다.

(4)의 서술에 따르면 (7ㄱ)의 예에는 수량을 나타내는 상태 동사 '많더라'가 있기 때문에 '책들'이 아니라 '책'이라고 쓴 것이다. (7ㄴ)의 예도 '여기저기서'라는 부사 때문에 '전화들'이 아니라 '전화'가 사용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실제로 '많다'나 '여기저기'라는 수량 표현이 없는 (7ㄱ'), (7ㄴ') 같은 경우에도 '책들', '전화들'이 사용되는 것은 어색하다. (7ㄷ')에서도 '맥주들'은 어색하다. 다시 말해 수량 표현 때문에 '들'이 사용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물 명사에 '들'이 결합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람 명사일 때에는 어떠할까?

(8) ㄱ. 교수님 서재에는 학생이 많더라.
ㄱ', 교수님 서재에는 학생들이 많더라.
ㄴ. 여기저기서 학생이 왔다.
ㄴ', 여기저기서 학생들이 왔다.

사물 명사와 달리 사람 명사에 '들'이 사용된 경우에는 수량 표현과 함께 써도 어색하지 않다. 복수 표지 '들'이 붙지 않아도 수량 표현 덕분에 복수임을 알 수 있으나 그렇다고 '들'이 붙으면 비문이 되는 것도 아니다.

(6가)의 서술을 확정짓기 전에 과연 '들'은 사람 명사와 사물 명사와의 결합이 자유로운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일반적인 '들'의 사용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인 말뭉치를 분석한 강범모(2007)에 따르면 '들' 복수형은 무표 복수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람>동물>사물 명사'의 순으로 많이 쓰인다. 사물 명사와 함께 쓰이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대부분의 경우 사람 명사와 함께 쓰고 있음을 실제 코퍼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초급 한국어 수준에 맞는 예문으로 다시 살펴보자.[11)]

(9) ㄱ. 어제 뭐했어요?
ㄴ. 친구들을 만났어요.
ㄷ. 영화들을 봤어요.

(9ㄱ)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9ㄴ)은 자연스러우나 (9ㄷ)은 자연스럽다고 하기 어렵다. 굳이 어제 본 영화가 한 편이 아니었음을 말하고자 한다면 '영화를 두 편 봤어요, 영화를 몇 편 봤어요.' 정도로 표현할 수 있다. 특정되지 않은 복수의 의미로서 '들'을 덧붙일 때는 '사람 명사-들'은 자연스러우나 '사물 명사-들'은 어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검토를 바탕으로 (6)에서 제시한 제약을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본다.

(10) 가. '들'은 셀 수 있는 명사에 결합하여 복수의 의미를 더한다. (기본적으로 사람 명사에 결합한다.)
나. '들'은 복수 인칭 대명사(우리, 저희, 너희, 여러분)에 결합하여 복수 의미를 강조한다.

---

11) 국제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2017) 기준에 따르면 초급 단계의 교육 내용은 '구어'이다. 따라서 여기서 다루는 예문이나 학습자 자료도 구어로서 자연스러운가를 판단하기로 한다.

다. 명확한 수를 나타내는 표현(수사, 단위 명사)과는 함께 쓰지 않는다.
라. 불명확한 수를 나타내는 표현(많다, 여러 등)과 함께 쓸 때는 '들'을 쓰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사람 명사-들'로 사용할 수 있다.
마.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는 경우에는 '들'의 사용이 필수적인 경우가 있다.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교육 문법으로서 지금까지의 논의를 최대한 정리하면 (10)과 같이 되나 정리한 내용이 완결된 '들'의 학습 문법이 될 수는 없다. 또한 이 모든 내용이 초급 학습자에게 필요한 문법이 될 리도 없다. 주격 조사 '이/가'의 다양한 문법과 제약을 초급단계에서 한 번에 제시하지 않듯이 복수표지 '들'의 다양한 문법과 제약을 초급단계 학습자에게 다 제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초급 단계 학습자들에게 제시할 만한 '들'의 문법 내용은 어디까지로 삼아야 좋을까.

Ⅲ. 교재 분석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어 교재에서는 복수표지 '들'을 문법 항목, 혹은 어휘 항목으로 구분하여 가르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교재에서 '들'이 사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대학 한국어 교재 4권에서는 초급단계에서 '들'이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학습자들이 간접적으로 익힌 '들'의 의미 기능을 알아보고 이들의 제시 방식에 문제점은 없는지 생각해보기로 한다.[12)]

12) 살펴본 대학 교재는 서강대 한국어 1,2, 서울대 한국어 1,2, 연세 한국어 1,2, 이화 한국어 1,2이며 각각 교재 (가), (나), (다), (라)로 부르기로 한다. 이들 교재에서 대화문, 읽기자료, 듣기 지문으로 제시된 부분을 분석하였다.

1급 교재에서 사용된 '들'을 모두 모아 관찰했을 때 가장 놀라운 특징은 함께 사용된 선행명사가 대부분 사람 명사라는 점이다.

〈표 1. 1급 교재에서 사용된 '들' 선행명사의 종류〉

구분	교재(가)	교재(나)	교재(다)	교재(라)
사람 명사	친구들(10회) 사람들(3회) 학생들(1회) 아이들(1회)	친구들(7회) 가족들(1회) 학생들(1회)	사람들(9회) 친구들(6회) 가족들(4회) 아이들(2회) 외국인들(1회)	친구들(12회) 사람들(3회) 아이들(3회) 가족들(1회) 손님들(1회) 학생들(1회) 할머니들(1회) 할아버지들(1회)
사물 명사	-	-	-	것들(1회) 원룸들(1회)
출현횟수 (사람/사물)	15회 / 0회	9회 / 0회	22회 / 0회	23회 / 2회

교재(라)에서 유일하게 사물 명사 '것', '원룸'과 함께 쓰인 예가 나타난다.[13)]

13) 사물 명사와 '들'이 쓰인 예들은 다음과 같다.

ㄱ. 그리고 학교 근처에 좋은 하숙집이나 원룸들이 많아요.
ㄴ. 아이들과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저에게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의 의미입니다.

(ㄱ)은 편지글의 한 부분인데, 의존 명사 '들'을 사용하여 '학교 근처에 좋은 하숙집이나 원룸 들이 많아요.'의 의미로 쓴 것이 아니라면 1급 예문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ㄴ)는 1급 마지막과에 제시된 읽기글의 일부인데, '중요한 것들'은 문어체로 쓸 때 사용되는 표현으로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1급과 2급에서는 교육 과정상 문어체와 구어체를 구분하여 가르치지 않고 기본적으로 구어표현으로 한국어를 가르친다. 이런 상태에서 문어체의 문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제시하면 학습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2급 교재에서 사용된 '들'도 대부분 사람 명사와 함께 나타난다. 초급 단계 교재에 쓰인 '들'이 대부분 사람 명사와 결합하여 쓰이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일반적인 문법 기술에서 '들'이 항상 사람 명사와 결합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지 않는 경우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어도 초급 단계의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제시되는 문장 수준에서는 사람 명사에 '들'이 결합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교재에서의 쓰임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 것이다.

〈표 2. 2급 교재에서 사용된 '들' 선행명사의 종류〉

구분	교재(가)	교재(나)	교재(다)	교재(라)
사람 명사	사람들(25회) 친구들(16회) 손님들(4회) 학생들(3회) 여자들(2회) 아이들, 어른들, 외국인들, 이모들, 팀들, 우리들, 친척들, 분들(1회)	친구들(18회) 사람들(13회) 가족들(3회) 분들(2회) 배우들, 어른들, 외국인들, 유학생들, 이웃들, 조상들, 직원들, 팬들, 학생들(1회)	친구들(16회) 사람들(10회) 아이들(3회) 분들(3회) 노인들(2회) 대학생들, 동료들, 선배들, 어른들, 직원들, 환자들(1회)	친구들(24회) 사람들(16회) 분들(5회) 손님들(4회) 선생님들(3회) 가족들, 선배들, 아이들, 어른들, 관광객들 (2회) 여자들, 여학생들, 우리들, 직원들(1회)
사물 명사	물건들(2회) 섬들, 종이들, 집들, 차들(1회)	일들(1회)	새들(1회)	차들(1회)[14]
출현횟수 (사람/사물)	58회 / 6회	45회 / 1회	40회 / 1회	66회 / 1회

14) 사물 명사와 '들'이 쓰인 예들은 다음과 같다.

ㄱ. 왜 아기 앞에 그런 물건들을 놓아요?

사소하지만 '우리들'의 사용에 대해서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2장에서 살핀 사전, 문법서에서는 복수 인칭대명사에 '들'이 붙어 의미를 강조한 경우를 따로 언급하였다. 4개 교재 중 (가)와 (라) 교재에서만 각 한 번씩 '우리들'이 사용되는데, 이미 복수의 의미를 가지는 '우리'에 '들'이 붙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지 않고 그저 제시하고 있다. '우리'와 '우리들'의 사용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지고 교재 집필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Ⅳ. 초급 학습자 자료 분석

그렇다면 실제 초급 학습자들은 복수 표지 '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나눔터에서 형태주석 말뭉치를 검색한 결과를 가지고 살펴보았다.[15] 명사파생접미사

ㄴ. 하회마을은 한국의 전통 집들이 많아서 유명한 곳이에요.
ㄷ. 배를 타고 섬들을 구경해 보세요.
ㄹ. 또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새들도 많습니다.
ㅁ.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ㅂ. 그래서 많은 차들이 경부고속도로로 들어왔다가 다른 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 예(ㄱ)에 쓰인 '물건들'은 문맥상 앞서 언급한 특정한 물건들을 가리키기에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다. (ㄴ,ㄷ,ㄹ)의 경우는 문맥상 특정한 집, 섬, 새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번역투의 어색한 문장이라고 여겨진다. 그렇다고 모든 사물 명사와 '들'이 결합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ㅁ,ㅂ)의 경우에는 '들'을 쓰는 것이 그리 어색하지 않은데, 3급 이상 수준의 한국어에서는 분명 이런 유형의 문장이 쓰이게 될 것이다. 본고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사물 명사와 '들'이 결합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초급 단계의 학생들이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수준의 문장에서는 '사람 명사-들'이 전형적이라는 것이다.

(XSN)로 검색 조건을 걸어 1급과 2급 학습자가 사용한 '들'을 검색하였다. 검색된 자료 중 앞뒤 문맥상 '들'의 의미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와 태깅 상의 실수로 잘못 검색된 자료를 제외하고 다시 정렬한 결과, 1급 코퍼스에서 관찰된 예는 모두 2134건이며 2급의 예는 3966건이었다.

학습자 자료를 관찰한 결과 알 수 있는 첫 번째 특징은 학습자들 역시 '들'을 대부분 사람 명사와 함께 사용한다는 점이다. 1급 2134건 중 1998건(93.6%), 2급 3966건 중 3759건(95%)이 사람 명사에 '들'이 결합된 예이다. 사물 명사에 '들'을 결합한 예는 1급의 경우 전체의 6.4%, 2급의 경우 전체의 5%에 불과하다. 아래는 선행명사로 사용된 사람명사의 종류이다.

〈표 3. 학습자 코퍼스에서 사용된 '들' 선행명사의 종류〉

구분	1급 학습자 자료	2급 학습자 자료
사람 명사	친구들 (955회) 사람들 (600회) 가족들 (103회) 아이들 (55회) 학생들 (54회) 선생님들 (27회) 그 외 55종 (249회)	친구들 (1281회) 사람들 (1255회) 학생들 (350회) 가족들 (197회) 아이들 (119회) 선생님들 (65회) 그 외 97종 (458회)
사물 명사	꽃들 등 66종(136회)	음식들 등 94종(207회)
출현횟수 (사람/사물)	2543회 / 136회	3725회 /207회

15) 2015-2019년 구축된 학습자 말뭉치 중 형태주석말뭉치(2,629,261어절)를 대상으로 하였다.
https://kcorpus.korean.go.kr/service/goSummaryStatus.do

2급이 되어 총 단어수가 늘어남에 따라 함께 사용되는 사람 명사의 종류가 늘어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친구들, 사람들, 학생들, 아이들'의 사용이 많은 것은 공통적이었다. 이는 한국인의 사람 명사 사용 빈도 순서를 '사람 > 아이 > 학생 > 국민 > 친구'로 관찰한 강범모(2007)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11) ㄱ. 식당에서 친구들 만날 거예요. (1급)
ㄴ. 나는 반 친구들을 초대할지 제임스의 친한 친구들을 초대할지 생각 중이다. (2급)
ㄷ. 그리고 학생들은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1급)
ㄹ. 주말이기 때문에 지하철 안에 사람들이 많이 있다. (2급)
ㅁ. 주택으로 이사를 가면 아이들은 마당에서 공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2급)

(11)에 제시된 예들을 보면 학습자들은 명사 뒤에 '들'을 사용함으로써 복수형을 나타낸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사용하고 있다. (11ㄱ)에서 '친구들'이 아니라 '친구'를 사용하여 '식당에서 친구 만날 거예요.'라고 발화했다면 친구 한 명을 만나겠다는 의미로 전달된다. (11ㄴ)과 (11ㄷ)의 예에서도 '들'이 사용됨으로써 적극적으로 복수의 의미를 전달한다. (11ㄹ)의 경우에는 불특정한 수량을 표현하는 '많이'가 사용되어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을 사용해도 문제는 없으나 '사람들'을 사용했다고 해서 비문이 되지는 않는다. (11ㅁ)에서도 '아이'가 아니라 '아이들'을 사용하는 것이 정확하다.

두 번째 특징은 '가족들'의 사용이 많다는 점이다. 앞 장에서 교재에 사용된 선행 명사를 관찰했을 때에는 '가족들'이 사용된 경우가 그리 많지 않았다. 또한 한국인의 코퍼스 사용 양상에서도 '가족'이라는 단어의

사용빈도는 전체 명사 중 5위 안에 들지도 않는다. 그러나 외국인 학습자의 경우에는 자신을 소개할 때에나 글을 쓸 때 '가족'에 대해서 표현하고자 할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 ㄱ. 가족들이 선물을 좋아할 거예요. (1급)
ㄴ. 가족들 옆에 없어서 힘듭니다. (2급)
ㄷ. 가족들과 함께 기념할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2급)

이때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가족들'의 의미를 '가족 구성원들'의 의미로만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족'은 의사집합명사로서 '가족들'은 개체의 복수를 의미할 수도 있고 집합의 복수를 의미할 수도 있다.[16] 코퍼스에서 관찰된 '가족들'은 모두 개체의 복수를 의미하는 '가족 구성원들'의 의미로만 사용되고 있었다. 이는 '들'의 교육 내용이라기보다 '가족, 형제, 국민' 등 의사집합명사의 교육 내용이지만 복수표지 '들'을 가르칠 때 언급해 줄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여겨진다.

세 번째 특징은 사물 명사에 '들'을 결합한 경우 대부분 어색한 문장을 만들어 낸다는 점이다. 전체 6100건 중 약 5.6%인 343건의 자료에서만 선행 명사로 사물 명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중 296건(86.3%)의 예문에서 '들'이 적절하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

(13) '사물 명사-들'로 사용된 학습자 자료의 예
ㄱ. 우리는 고등학교에서 케이크들을 먹었어요.
ㄴ. 같이 영화들을 봤어요.
ㄷ. 시장에서 사과하고 가지들을 샀어요.

---

16) 의사집합명사라는 용어는 명사를 보통명사, 집합명사, 의사집합명사로 나눈 전영철(2015)의 구분을 따른 것이다.

ㄹ. 좋은 기억들을 많이 만들었다.
ㅁ. 그래서 좀 비싸도 내가 그 드레스들을 모두 샀어.

(ㄱ)의 경우 케이크를 자주 먹었거나 여러 종류의 케이크를 먹었다는 뜻을 전달하려고 했을 것으로 보이나 이때 '케이크들'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ㄴ)의 예에서는 영화를 한 편 본 것이 아니라 여러 편을 봤다는 뜻으로 '들'을 사용했으나 이 경우에는 '영화들을 봤어요.'가 아니라 '영화 몇 편을 봤어요' 정도로 표현되어야 한다. (ㄷ)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들'을 사용하지 않아도 사과와 가지를 여러 개 샀다는 뜻이 전달되나 굳이 복수임을 나타내고 싶다면 '사과하고 가지를 몇 개 샀어요.' 정도로 고쳐야 한다. (ㄹ)의 경우 '기억'은 가산명사가 아니므로 '들'과 결합될 수 없다. (ㅁ)의 경우에는 '드레스'가 사물 명사이긴 하나 문맥상 특정된 '그 드레스들'이므로 '들'과 결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복수를 의미하는 '모두'가 쓰인 문장이므로 '들'이 없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게 들린다.

'사물명사-들'이 쓰인 문장 중에서는 '-가 많다', '-가 많이 있다' 문형과 같이 쓰인 경우가 많았다. 사물 명사와 '들'을 같이 쓴 경우 중에서 1/4에 달하는 82건의 예문에 '많다'가 함께 쓰였고 아래 예와 같이 어색한 문장을 만들어낸다.

(14) '많다'와 '사물명사-들'이 사용된 학습자 자료의 예
ㄱ. 제주도에 바닷가들이 많아요.
ㄴ. 러시아에 공원들 많아요.
ㄷ. 홍대에 대학교들 많이 있어서 재미있어요.
ㄹ. 봄에 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문(14)에 있는 문장에서는 모두 '들'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사물

명사와 '들'을 결합한 예에서 1/4 가량이 '많다'와 함께 쓰고 있다는 것은 학습자들이 복수를 표현하고자 할 때 '들'을 사용한다는 지식은 알고 있으나 사물 명사와 함께 쓰면 어색하다는 제약은 알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학습자 코퍼스에 사용된 '들'을 검토한 결과 초급 단계의 학습자들이 형성하고 있는 학습자 문법의 내용을 알 수 있었다. 초급 한국어 학습자들은 복수 표지 '들'을 사람 명사에 결합하여 쓰고 있었다. 5% 가량의 예문에서 사물 명사에 '들'을 결합하여 쓰는 경우가 나타났는데 이중 80% 이상이 오류 문장이며 이때에는 '들'을 사용하지 않아야 자연스러운 한국어 문장이 된다.

Ⅴ. 결론: 초급 학습자용 '들' 교육 내용

한국어에서 복수 표지 '들'은 문법적으로 정의하기 매우 까다로운 단위임에 틀림없다. 국어 사전류에서는 매우 간단히 접사로 처리해 버리기도 하지만 학자들 사이에서는 그 문법적 지위에 대해 아직까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한국어 교육 문법에서는 교육 대상으로 삼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코퍼스를 통해 관찰해 보면 실제로 학습자들은 복수 표지 '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있었고 교재에서도 초급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수준의 '들'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초급 학습자들에게도 복수 표지 '들'의 문법적인 내용을 가르쳐야 할 필요성을 확인했다.

교재와 학습자 코퍼스를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복수표지 '들'의 교육 내용을 정리해 보자. 앞서 2장에서 정리한 내용 (10) '들'의 문

법과 제약을 예와 함께 초급 학습자용으로 다시 서술해 보았다.

(15) 초급 학습자용 복수 표지 '들'의 교육 내용

가. '들'은 사람 명사에 결합하여 복수의 의미를 더한다.
- 어제 친구를 만났어요. (단수)
- 어제 친구들을 만났어요. (복수)

나. 명확한 수를 나타내는 표현(수사, 단위 명사)과는 함께 쓰지 않는다.
- 어제 친구 두 명들을 만났어요. (×)
- 어제 친구 둘들을 만났어요. (×)
- 어제 친구 둘을 만났어요. (○)

다. 불명확한 수를 나타내는 표현(많다, 여러 등)과 함께 쓸 때는 '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사람 명사-들'로 사용할 수도 있다.
- 어제 친구들을 많이 만났어요. (○)
- 어제 친구를 많이 만났어요. (○)
- 어제 음식들을 많이 먹었어요. (×)
- 어제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 (○)

라. '들'은 복수 인칭 대명사(우리, 저희, 너희, 여러분)에 결합하여 복수 의미를 강조한다.
- 어제 우리는 영화를 봤어요. (○)
- 어제 우리들은 영화를 봤어요. (○)

마. '이런, 그런, 저런' 등의 특정한 수식어와 함께 쓰이는 경우 셀 수 있는 사물 명사에도 '들'을 붙일 수 있다.
- 저는 그런 영화들은 안 좋아해요.
- 이런 색깔들은 빼 주세요.

(15)에 제시한 내용은 초급 단계 학습자를 위한 교육 내용이다. 이 내용이 한국어 복수 표지 '들'의 종합적인 교육 문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이 5가지 내용을 모두 초급단계에서 필수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라)와 (마)의 내용은 중급에서 좀더 자세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앞으로 '들'의 교육 문법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서 중급, 고급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을 확정해가야 할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 사물 명사와 함께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해 의미론적으로 분석해야 하며, 구어와 문어에서 쓰이는 문체상의 특징이나 관용 표현으로 쓰이는 경우도 정리가 되어야 한다. 초급 단계의 코퍼스 분석에 그친 본고의 논의는 많이 부족하지만 적어도 초급 단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들'을 교육할 때에는 서론에서 제시했던 오류 문장을 다음과 같이 고쳐 줄 수 있게 되었다.

(16) ㄱ. 우리는 고등학교에서 케이크들을 먹었어요. (×)
ㄱ'. 우리는 고등학교에서 케이크를 여러 개 먹었어요.
ㄴ. 같이 영화들을 봤어요. (×)
ㄴ'. 같이 영화를 몇 편 봤어요.
ㄷ. 시장에서 사과하고 가지들을 샀어요. (×)
ㄷ'. 시장에서 사과하고 가지를 많이 샀어요.

초급 한국어 학습자에게는 사물 명사에는 복수 표지 '들'을 쓰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굳이 그 대상이 복수임을 나타내고자 한다면 (16ㄱ', ㄴ', ㄷ')에 쓴 것처럼 수량을 나타내는 표현, 여러 개, 몇 편, 많이 등과 함께 사용하면 된다는 것을 알려주면 '들'과 관련된 오류를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범모, 「복수성과 복수 표지: '들'을 중심으로」, 『언어학』, 제47집, 한국언어학회, 2007, pp.3-31.

김중섭 외,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4단계)』, 국립국어원, 2017.

노은주, 「한국어 무표형과 '들' 복수형의 의미」, 『담화와 인지』 제15집 제1호, 담화인지언어학회, 2008, pp.43-62.

배주채, 『한국어문법』, 신구문화사, 2019.

백봉자, 『한국어 문법 사전』, 도서출판 하우, 2006.

안희돈, 황종배, 정기섭, 「조선족 이중언어 화자들의 한국어 형태 처리: 복수형 접미사 -들의 차폐점화 실험 연구」, 『외국어교육』, 제25집 제1호, 2018, pp.235-252.

이건희, 「한국어 복수 표지 '들'의 습득 양상-중국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새국어교육』, 제117집, 2018, pp.203-226.

이쉐신원, 「한국어・미얀마어의 복수 표지 '-들'과 'tou', 'twei', 'mya'의 대조 분석 및 교육 방안 연구」, 『한글』, 제80집 제1호, 2019, pp.191-221.

전영철, 「한국어 집합 명사와 복수 표지 들」, 『어학연구』, 제51집 제3호,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2015, pp.793-814.

정 혜, 「한국어 복수표지 들에 관하여」, 『언어학연구』, 제19집, 한국중원언어학회, 2011, pp.281-302.

조은숙, 「한국어와 터키어의 복수표현을 통한 표현구조 대조-'들'과 'lar'를 중심으로」, 『어문학』 제145집, 한국어문학회, 2019, pp.61-92.

조형일, 「한국어 표현,이해 맥락과 장르 중심 문법 교육」, 『제30차 한국문법교육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문』, 한국어문법교육학회, 2019, pp.39-45.

〈교재〉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서강 한국어』(1A~2B), 도서출판 하우, 2008.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서울대 한국어』(1A~2B), 투판즈, 2015.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연세한국어』(1-1~2-2), 연세대학교출판부, 2013.

이미혜 외, 『이화 한국어』(1-1~2-2),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Abstract

The Need to Teach Plural Marker 'Teul' for Beginners

Ha, Shin-young

Up until recently, Korean language education has not focused on the plural marker 'teul' within grammar or vocabulary curriculums, thus rarely explaining the essential meaning of 'teul' to Korean language learners. Even though learners exhibit errors when using this grammatical constructions, there still remain cases where the teacher cannot correct the sentences due to a lack of standards for teaching the grammar of 'teul.' Over the course of this study, I observed the usage of 'teul' in Korean language textbooks, and analyzed the role of 'teul' in learners corpus in order to establish a method for teaching this grammar to beginner learners.

Essentially, it is most important to educate Korean language learners that the plural marker 'teul' is to be combined with a human noun, not with an object noun. It is natural to forgo the usage of 'teul' when there are expressions for indefinite numbers in sentences, but it should be taught that 'teul' can be used with human nouns even in such sentences. This material may be included in teaching content which covers sentences when the preceding noun is a plural-person pronoun, thus allowing the plurality to be emphasized by adding an additional 'teul.'

Key Words : Teaching grammar, Plural marker 'teul', Beginning language learners, Human nouns, Object nouns, Learner corpus analysis

하신영
소속 : 인천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전자우편 : atdust@daum.net

이 논문은 2021년 2월 21일 투고되어
2021년 3월 14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21년 3월 26일 게재 확정됨.